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經濟週評

세계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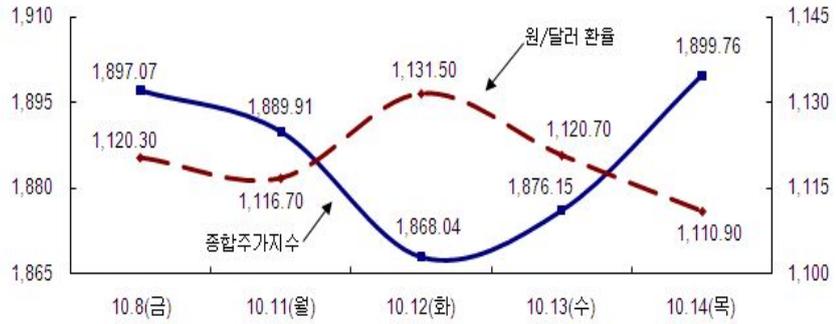
10-40(통권 420호)
2010.10.15



■ 슈퍼차이나의 위력(威力)과 영향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0.8~10.14)

Better than
the Best!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슈퍼차이나의 위력(威力)과 영향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0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연구본부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임 희 정 연구위원 (2072-6218, limhj9@hri.co.kr)

Executive Summary

□ 슈퍼차이나의 위력(威力)과 영향

■ G3 갈등과 슈퍼차이나

미국·중국·일본의 G3 국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슈퍼차이나의 위력 발휘에 주요인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미국과 중국은 위안화 가치 절상, 미국 닭고기 제품 및 중국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등 갈등 고조. 일본과 중국은 센카쿠 열도에서의 일본의 중국 어선 나포 등으로 갈등.

■ 슈퍼차이나의 위력(威力)

(경제) 중국 GDP, 2010년에 세계 2위로 부상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국이 2010년 2/4분기에 GDP 규모상 일본보다 앞선 2위로 부상했고 2030년에 가서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1위가 될 가능성도 제기됨.

(금융) 차이나 머니 증가와 금융시장 : 세계 제1의 외환보유 국가로서 세계 자본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 중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2007년 1조 5,282억 달러에서 2010년 6월 현재 2조 4,543억 달러로 급증. 중국의 해외투자 규모도 2008년 520억 달러, 2009년 480억 달러로 높은 수준을 유지.

(무역)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수에서 선두 : 중국은 세계 수출 시장 1위 품목 수가 2005년 832개에서 2008년 1,210개로 증가했고 순위에서도 선두 자리를 고수. 고기술 및 중고위기술 품목에서도 2008년 기준으로 미국 및 독일에 이어 2위를 차지.

(자원) 풍부한 매장량과 적극적인 자원 외교를 통한 자원대국 : 중국은 희소금속에 대한 풍부한 매장량을 바탕으로 주요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 또한 1980년대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세계진출전략(going global)'에 따라 중국기업들의 광범위한 네트워크 확립.

(교육)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유학생을 배출, 유학생 유입도 증가 : 2007년 현재 고등교육기관재학 유학생들 중 중국이 1위를 기록. 거의 모든 선진지역에서 중국학생들이 외국인 학생들 중 가장 큰 비중 차지. 한편, 세계적으로 유학지역으로 중국에 대한 선호도 높아짐.

(군사력) 군비 지출 증대 지속 : 중국 군비 예산 및 국방관련 실질 지출 모두 증가세.

■ 시사점과 과제

최근 국내경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슈퍼차이나의 위력 행사로 인한 주요국 갈등 심화. 이로 인한 국내 경제 불안 요인 증대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

(위협 요소) 슈퍼차이나에 따른 주요국 갈등에 의한 위협 요소가 증가 : 환율 급락 가능성 증대, 금융정책 무력화, 통상여건 악화,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 한중관계 소원화.

(과제) 한국과 중국의 경제 협력 강화, 국내 금융시장 안정,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이 시급 : 첫째, 한국의 대세계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향후 확대 가능성을 고려할 때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한중FTA 협정 체결 등 적극적인 정책 방안 필요 둘째, 차이나머니의 국내 유입 급증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정을 예방하기 위한 자금흐름 모니터링 강화. 셋째, 중국의 산업 기술력 향상으로 인한 한국 산업경쟁력 약화를 만회하기 위해 첨단소재부품 산업육성책 지속 추진 등 적극적인 산업경쟁력 강화 촉진 필요

1. G3 갈등과 슈퍼차이나

○ 미국·중국·일본의 G3 국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슈퍼차이나의 위력 발휘에 주요인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미국·중국의 갈등

- 미국 정부는 2010년 9월 위안화 가치를 절상하지 않으면 무역 제재할 것이라고 선언. 또한, 중국 신용평가회사회사 “다궁”에 대한 미국의 승인 거부
- 중국은 2010년 9월 말 미국 닭고기 제품에 5년간 최대 105.4% 반덤핑 관세 부과
- 이전에도 미국은 2009년 초에 중국산 철강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고 2010년 초에는 대만에 무기 판매를 승인함으로써 중국을 자극. 중국은 2010년 1월 요격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미국을 긴장시킴

- 일본·중국의 갈등

- 일본은 2010년 9월 센카쿠열도서 일본 순시선과 충돌한 중국 어선을 나포
- 중국은 나포된 어선의 선장 석방 압력에 대한 조치로 대일 희토류 선적 전면 중단

○ 이러한 G3간 갈등 고조는 슈퍼차이나의 위력 발휘에 의한 것임

< 미·중 및 일·중 갈등 >

미·중 갈등	일·중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중국산 철강에 반덤핑 관세 부과 (2009년 1월 10일) - 중국, 요격미사일 발사 실험 (2010년 1월 11일) - 미국, 대만에 대한 64억 달러어치 무기 판매 승인(2010년 1월 19일) - 미국, “위안화 절상하지 않으면 무역 제재 선언(2010년 9월 20일)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중국 신용평가회사 다궁 승인신청 거부(2010년 9월 23일) - 중국, 미국산 닭고기에 5년간 최대 105.4% 반덤핑 관세 부과(2010년 9월 2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센카쿠열도서 일본 순시선과 충돌한 중국 어선 나포(2010년 9월 7일) - 중국, 대일 희토류 선적 전면 중단 (2010년 9월 23일) - 중국, 센카쿠열도 해역에 어업 감시선 순찰 상시화 (2010년 9월 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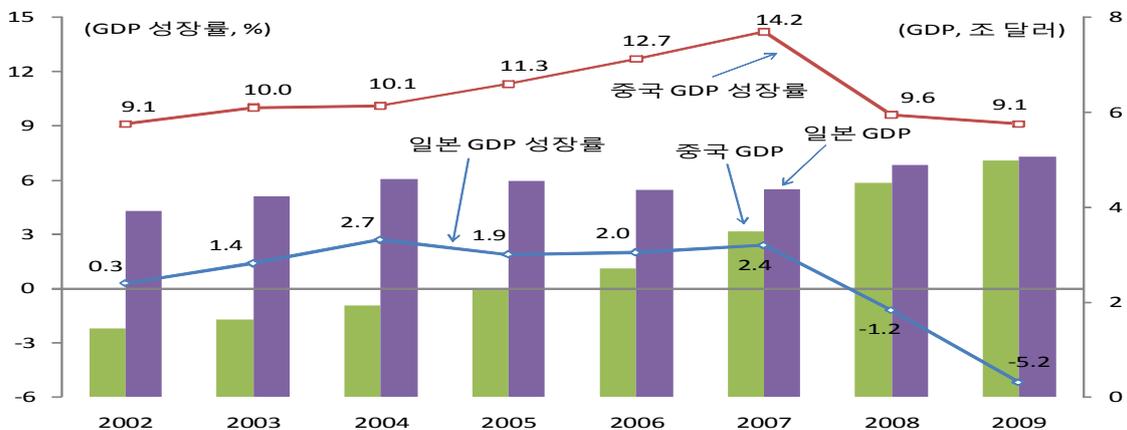
자료 : 내외신종합.

2. 슈퍼차이나의 위력(威力)

○ 경제 : 중국 GDP, 2010년에 세계 2위로 부상

- 중국이 2010년 2/4분기에 GDP 규모상 일본보다 앞선 2위로 부상
 - 2010년 2/4분기 일본은 1조 2,883억 달러, 중국은 1조 3,369억 달러로 중국이 일본을 역전
 - 2009년까지는 중국과 일본의 GDP는 각각 4조 9,850억 달러, 5조 680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2010년 양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각각 10%와 2~3%인 것을 고려하면 2010년 기준으로 중국이 일본을 앞지르게 됨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국이 2위로 도약
 -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중국의 성장률은 9.6%로 2007년 대비 4.6%p가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2009년도 9.1%를 기록
 - 그러나 일본의 경우, 2008년 -1.2%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을 뿐 아니라, 2009년에는 -5.2%까지 하락
 - 일본은 2005년부터 3년간 평균 2.1%의 성장률을 보인 반면, 중국은 평균 10%대 이상의 성장세를 보임
- 2030년에 가서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될 가능성도 제기됨
 - 일본 내각부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美中の 세계 경제 비중이 각각 24.9%와 8.3%지만 2030년에는 중국 23.9%, 미국 17.0%로 역전될 전망이다

< 중국, 일본의 GDP 추이 >



자료 : ADB; 중국 국가통계국, 일본 내각부.

○ 금융 : 차이나 머니 증가와 금융시장

- 세계 제 1의 외환보유 국가로서 세계 자본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
 - 중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2007년 1조 5,282억 달러로 세계 1위를 기록한 후, 2008년 1조 9,460억 달러, 2009년 2조 3,992억 달러, 2010년 6월 현재 2조 4,543억 달러로 급증하고 있음
 - 중국의 해외 투자 규모는 2007년 220억 달러, 2008년 520억 달러, 2009년 480억 달러로 높은 수준을 유지
 - 향후 중국의 해외 투자는 2013년 1,000 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자본 유입국에서 유출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임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중국은 주로 미국의 국채를 매입했으나 최근 들어 중국이 아시아 국가 채권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중국은 4월 미국 국채를 9,002억 달러를 보유했으나, 5월 전월대비 325억 달러 감소한 8,677억 달러, 6월 240억 달러 감소한 8,437억 달러를 기록. 7월에는 30억 달러 증가한 8,467억 달러 보유
 - 2009년말 1조 8,726억 원의 한국 국채를 보유했던 중국은 2010년 6월말 기준 5조 1,505억 원(약 44억 1,000만 달러)으로 2.7배 이상 증가
 - 차이나 머니의 한국 국채 매입 등으로 기준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시중 금리가 하락. 현물시장에서 원화 매입으로 원화가치 상승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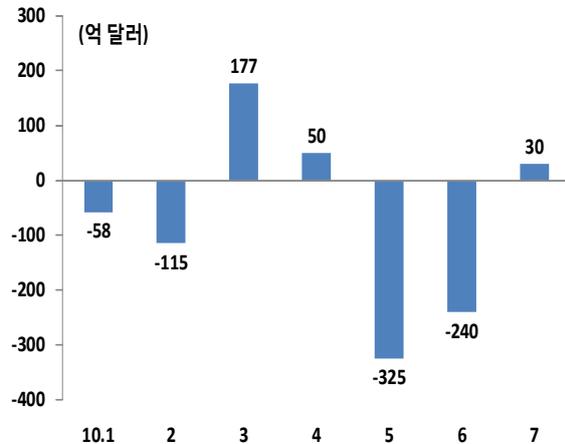
<중국의 해외 투자 규모 추이>

(단위 : 억 달러)

	2007	2008	2009	2010
외환보유액	15,282	19,460	23,992	24,534
FDI (유출)	220	520	480	-

자료 : UN, World Investment report, 2009 & 2010.
 주 : 외환보유액 2010년은 6월 자료임.

<중국의 미국 국채 월별 변동 추이>



자료 : 미국 재무부.

○ 무역 :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 수에서 선두

- 중국은 2005년부터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 수에서 선두 자리를 고수
 - 중국은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 수는 2005년 932개에서 2008년 1,210개로 증가하였고 전 세계 수출 비중 1위를 고수

< 국가별 세계 수출 점유율 1위 품목 순위 추이 >

국가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중국	1(1,210)	1(1,108)	1(1,202)	1(932)
독일	2(860)	2(848)	2(866)	2(847)
미국	3(587)	3(611)	3(651)	3(650)
이탈리아	4(288)	4(296)	4(306)	4(303)
일본	5(213)	5(236)	5(240)	5(275)
인도	6(151)	8(127)	11(116)	11(110)
대만	7(141)	9(123)	13(80)	13(86)
벨기에	8(133)	7(140)	7(133)	7(141)
인도네시아	9(130)	11(106)	14(77)	14(72)
프랑스	10(129)	6(144)	6(160)	6(163)
한국	19(52)	19(52)	17(58)	17(59)

자료 : 무역협회, “2008년 우리나라 세계 시장 수출 점유율 1위 품목 조사”, 2010년 8월.

주 : ()안은 세계 수출 점유율 1위 품목 수.

- 기술 수준별로 세분하여 볼 때, 2008년 기준으로 고기술 및 중고위기술에서도 미국 및 독일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음

< 2008년 기술 수준별 세계 1위 품목 수 >

	고기술	중고위기술	중저위기술	저기술
1	미국(88)	독일(390)	중국(311)	중국(520)
2	중국(81)	중국(253)	독일(240)	독일(137)
3	독일(78)	미국(213)	미국(98)	이탈리아(124)
4	일본(32)	일본(91)	일본(71)	미국(119)
5	홍콩(28)	이탈리아(76)	이탈리아(71)	인도(71)
	한국(11)[23]	한국(21)[14]	한국(25)[8]	한국(5)[34]

자료 : 무역협회, “2008년 우리나라 세계 시장 수출 점유율 1위 품목 조사”, 2010년 8월.

주 : ()안은 품목 수, [] 안은 한국의 순위.

○ 자원 : 풍부한 매장량과 적극적인 자원 외교를 통한 자원 대국

- 중국은 희소금속¹⁾에 대한 풍부한 매장량을 바탕으로 주요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

- 중국의 희소금속 수입 경우 지역적 편재성²⁾이 양호. 이는 오랜 기간 아프리카 등 제 3세계와의 자원 외교 및 수입국 다변화의 결과로 볼 수 있음
- 희소금속 중에는 텅스텐, 몰리브덴, 희토류, 안티모니, 바나듐, 카드뮴 등의 중국 매장량이 1위이고 망간 6위, 지르코늄 7위, 코발트는 8위를 차지함
- 6대 전략 광물³⁾ 중에는 아연의 중국 매장량이 세계 1위, 철광석 3위, 니켈은 세계 10위 임
- 기타 광물로는 중정석, 주석, 창연, 흑연 등의 중국의 매장량이 세계 1위 임

< 중국의 주요 광물 매장량 >

광종	단위	중국 (A)	세계 (B)	A/B(%)	세계순위	
희소금속	텅스텐	톤	1,800,000	2,800,000	64.3	1
	몰리브덴	톤	3,300	8,700	37.9	1
	희토류	톤	36,000,000	99,000,000	36.4	1
	안티모니	톤	790,000	2,100,000	37.6	1
	바나듐	톤	5,000,000	13,000,000	38.5	1
	카드뮴	톤	90,000	590,000	15.3	1
	망간	천톤	40,000	540,000	7.4	6
	지르코늄	백만톤	0.5	56	0.9	7
	코발트	톤	72,000	6,600,000	1.1	8
6대전략	아연	천톤	33,000	200,000	16.5	1
	철광석	백만톤	22,000	160,000	13.8	3
광물	니켈	톤	1,100,000	71,000,000	1.5	10
기타	중정석	천톤	62,000	170,000	36.5	1
	주석	톤	1,700,000	5,600,000	30.4	1
	창연	톤	240,000	320,000	75	1
	흑연	천톤	55,000	71,000	77.5	1
	연	천톤	12,000	79,000	15.2	2
	형석	천톤	21,000	230,000	9.1	3
	붕소	천톤	25,000	170,000	14.7	3
	은	톤	34,000	400,000	8.5	5
	보크사이트	천톤	750,000	27,000,000	2.8	5
	다이아몬드	백만ct	10	580	1.7	6

자료 :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10, 2010.

주 : 매장량은 현가격수준 하에서 경제성이 있는 광량.

- 1) 희소금속은 알칼리/알칼리토 금속, 반금속 원소, 철족 원소, 보론 그룹, 고용점 금속, 희토류 금속, 백금족 원소 등 35종(56개 원소)을 희소금속으로 지정. 김필수, “중국의 희소금속 자원 확보전략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2009.10.6 참조.
- 2) 지역적 편재성은 허시만-허핀달지수(HHI: Hirschman-Herfindahl Index)로 측정.

$$HHI = \sum_c (S_{ic})^2$$

$$S_{ic} = \text{전체 자원 수입 대비 해당 국가에 대한 자원 수입 비중}$$
 3개국 수입 집중도=특정 상품의 수입량 상위 3개국으로부터의 수입÷특정 상품의 전체 수입.
- 3) 6대 전략광물은 우라늄, 유연탄, 구리, 철, 아연, 니켈 등으로 구성.

- 중국은 1980년대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세계진출전략 (going global)'에 따라 중국기업들의 해외자원 확보노력이 본격화

- 2007년 기준으로 약 700개가 넘는 중국 기업들이 아프리카에서 활동하고 있고 중국정부는 이들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같은 중요한 자원들을 확보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국영회사들이 핵심적인 역할
- 에너지, 건설, 기계 그리고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대표적인 기업들이 중국 개발은행, 중국건설은행 그리고 수출입은행 등으로부터 받는 특혜융자와 신용 그리고 정부의 세제혜택에 힘입어 공격적으로 자원개발에 참여⁴⁾

<최근의 주요한 중국의 자원개발 투자활동>

자원	대상국가	내용
석유와 천연가스	앙골라	- 2006년 3월 SINOPEC과 앙골라 국영 Sonangol은 30억 달러를 투자하여 합작으로 Sonangol-Sinopec International (SSI) 설립에 합의 - 앙골라의 Lobito 지역에 제2의 정유공장건설 - SINOPEC (55%) 그리고 Sonangol (45%)의 지분분포
	수단	- 2006년 후반까지 중국정부와 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CNPC)는 수단에 40억 달러를 투자 - CNPC는 Greater Nile Petroleum Operating Company (GNPOC)의 지분 40%를 확보하고 Muglad 만에서 유전개발 - CNPC와 GNPOC는 수단에 모두 80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이에는 홍해쪽의 Marsa al-Bashai항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1,500km에 달하는 파이프라인 건설 포함
	나이지리아	- CNOOC는 Akpo지역의 지분 45%를 22억 천만 달러에 확보하였고 채굴권의 35%를 6억 달러에 매입
	가봉	- Total-Gabon과 Sinopec은 2004년 연간 백만 톤의 원유를 중국에 공급하기로 합의
	에티오피아	- Zhongyuan Exploration Bureau는 Gambella만에서 말레이시아의 국영 석유회사인 Petronas의 부탁으로 시추작업 - Ogaden지역에서 시추작업 진행
	중동(이라크)	- 2009년 12월, CNPC, 이라크 Alfaya 유전 개발 입찰, 계약
	아연·납	오세아니아
구리	잠비아	- 중국은 1억 7천만 달러를 투자 - 1999년에 구입한 Chambezi 구리광산은 현재 중국의 가장 큰 해외 구리채굴 광산
코발트	콩고민주공화국과 나미비아	- 투자증액

자료 : 1) *The Impact of the Chinese Presence in Africa*, JETRO London, April 2007.
2) Thomson Reuters, Mergermarket, JOGMEC.

4) *The Impact of the Chinese Presence in Africa*, JETRO London, April 2007

○ 교육 :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유학생을 배출, 유학생 유입도 증가

- 2007년 현재 고등교육기관재학 유학생들 중 중국, 인도 그리고 한국이 각각 1위, 2위 그리고 3위 기록
 - 약 280만 명으로 추산되는 세계전체 유학생들 중 중국학생들이 15%인 42만 1천 명, 인도가 5%인 15만 3천 명 그리고 한국이 4%인 10만 6천 명

< 2007년 현재 해외유학생 배출 상위 8개 국가 >

(단위: 명, %)

중국	인도	한국	독일	일본	프랑스	미국	말레이시아
421,000	153,000	106,000	78,000	55,000	54,000	50,000	47,000
(15%)	(5%)	(4%)	(3%)	(2%)	(2%)	(2%)	(2%)

자료: Chien, Chiao-Ling (2010), 「Global Trends in Student Mobility and Programme Preferences」, Going Global 4,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Mar 25.

- 거의 모든 선진지역에서 중국학생들이 외국인 학생들 중 가장 많은 비중
 - 2006년 현재 중국 학생들은 일본에서도 7만 4천 여 명으로 압도적인 1위 기록

< 2006년 현재 주요국가의 고등교육기관에 등록 중인 학생 분포 >

(단위: 명)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인도	76,503	중국	59,755	중국	63,543	중국	74,292
중국	62,582	인도	19,205	인도	36,078	한국	15,974
한국	58,847	그리스	17,675	말레이시아	18,074	대만	4,211
일본	38,712	아일랜드	16,790	홍콩	16,558	말레이시아	2,156
캐나다	28,202	미국	14,755	인도네시아	13,025	베트남	2,119
대만	27,876	독일	13,265	한국	12,352	미국	1,790
멕시코	13,931	프랑스	12,455	미국	11,901	태국	1,734
터키	11,622	말레이시아	11,450	태국	10,934	인도네시아	1,553
독일	8,829	나이지리아	9,605	일본	9,110	방글라데시	1,456
태국	8,765	홍콩	9,455	싱가포르	8,906	스리랑카	1,143

자료: Hawthorne, Leslyanne, 「Two-Step Migration: The Growing Competition for International Students as Skilled Migrants」, NEAS Conference, May 15, 2009.

- 한편, 세계적으로 유학지역으로 중국에 대한 선호도 높아짐
 - 2008년 기준으로 189개 국가로부터 온 약 22만 명의 외국학생들이 중국 전역의 592개의 대학교를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⁵⁾
 - 중국은 2020년까지 50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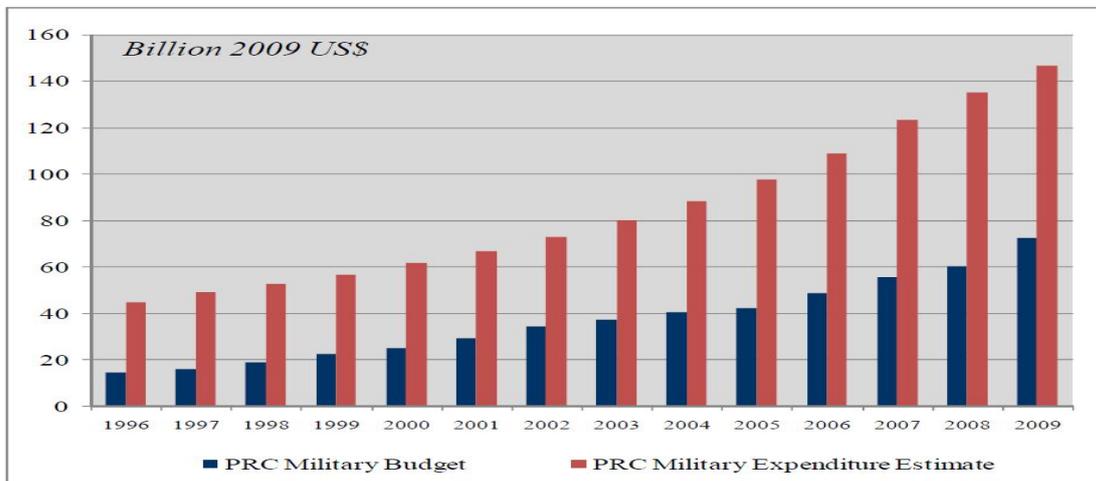
5) "International Students in China," Daily Telegraph, Oct 1, 2009.

○ 군사력 : 군비 지출 증대 지속

- 중국 군비 예산 및 국방관련 실질 지출 모두 증가세

- 중국의 국방 예산 증가율은 실질 경제성장률을 능가. 중국 국방 예산은 2000~2009년 기간 중 평균 11.8% 증가했고 동일 기간 중 실질 국민총생산은 9.6% 증가함
- 미국방성은 중국의 국방관련 실질 지출은 2009년에 1,500억 달러(2009년 중국 GDP 대비 30%)가 넘을 것으로 추정
- 중국의 국방예산은 2008년 601억에서 2009년 786억 달러로 증가. 2008년 예산 중 582억 달러가 현역군인 임금, 훈련, 장비구입에 사용되었고 19억 1,00만 달러 내외가 예비군과 민병대에 사용됨

< 중국의 군사 예산 및 지출액 >



자료 : China's Annual Real GDP and Military Budget Growth, 2000 - 2009.

PEOPLE'S REPUBLIC OF CHINA (millions of US\$)				FISCAL YEAR: 2008	
	Active Forces	Reserve Forces	Militia	Total	
				Amount	Percentage (%)
Personnel	19,950	175	0	20,125	33.47
Training & Maintenance	18,599	247	1,149	19,989	33.24
Equipment	19,677	187	158	20,022	33.29
Total	58,221	608	1,307	60,136	100

자료 : PRC Submission to United Nations on Military Expenditures, 2009.

- 주 : 1) Data drawn from China's July 2009 report to the United Nations.
 2) Personnel expenses cover salaries, allowances, food, clothing and bedding, insurance, welfare benefits and pensions for officers, non-ranking cadres, enlisted men, and contracted civilians.
 3) Training and maintenance expenses cover troop training, institutional education, and running and development of daily work and activities.
 4) Equipment expenses cover research and development, procurement, maintenance, and transportation and storage of weaponry and equipment.

6) "Foreign Student Quota to Expand," China Daily, Jul 29, 2008.

3. 시사점과 과제

○ 최근 국내경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슈퍼차이나의 위력 행사로 인한 주요국 갈등 심화. 이로 인한 국내 경제 불안 요인 증대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

- 슈퍼차이내에 따른 주요국 갈등에 의한 위협 요소 증가
 - 환율급락 가능성 증대 : 중국과 미국의 환율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위안화의 가치 상승은 원화 가치 동반 상승을 초래
 - 금융정책 무력화 : 중국은 풍부한 외화 자금을 이용하여 주요국 채권을 지속적으로 매입. 이는 한국 국채 수익률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내 금융정책의 방향성을 교란하는 요인으로 작용
 - 통상여건 악화 : G3 국가간 갈등 심화로 인해 미국산 닭고기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관세, 중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 등은 한국의 통상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 : 전기전자 및 자동차 등 국내 주력산업의 중국 추격이 빨라짐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
 - 대중관계 소원화 : 미중, 미일 갈등 속에서 한국과의 관계도 소원해질 가능성 증대
- 한국과 중국의 경제 협력 강화, 국내 금융시장 안정,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이 시급
 - 한국의 대세계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향후 확대 가능성을 고려할 때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한중FTA 협정 체결 등 적극적인 정책 방안 필요
 - 차이나머니의 국내 유입 급증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정을 예방하기 위한 자금흐름 모니터링 강화
 - 중국의 산업 기술력 향상으로 인한 한국 산업경쟁력 약화를 만회하기 위해 첨단소재 부동 산업육성책 지속 추진 등 적극적인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 필요

현안분석실 연구위원 임 희 정 (2072-6218, limhj9@hri.co.kr)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8년			2009년					2010		
	연간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E)	1/4	2/4
미국	0.0	-4.0	-6.8	-2.6	-4.9	-0.7	1.6	5.0	2.6	3.7	1.7
유로 지역	0.5	-0.4	-1.9	-4.1	-2.5	-0.1	0.4	0.2	1.7	0.3	1.0
일본	-1.2	-5.4	-10.0	-5.2	-16.4	9.7	-0.3	3.4	2.8	5.0	1.5
중국	9.6	9.0	6.8	8.7	6.2	7.9	9.1	10.7	10.5	11.9	10.3
한국	2.3	3.1	-3.4	0.2	-4.3	-2.2	1.0	6.0	5.9	8.1	7.2

주: 1) 2010년 전망치(E)는 IMF 2010년 10월 기준이고 한국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08년말	2009년		2010년		전일비	
		6월말	12월말	10월8일	10월14일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2.21	3.54	3.83	2.39	2.51	0.12%p
	엔/달러	90.76	96.65	92.93	81.82	81.50	-0.32 ¥
	달러/유로	1.4042	1.4141	1.4413	1.4004	1.4071	0.0067\$
	다우존스지수(p)	8,776	8,447	10,428	11,006	11,095	89p
	닛케이지수(p)	8,860	9,958	10,655	9,589	9,584	-5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41	4.16	4.41	3.27	3.08	-0.19%p
	원/달러(원)	1,259.5	1,273.9	1,164.5	1,120.3	1,110.9	-9.4원
	코스피지수(p)	1,124.5	1,390.1	1,682.8	1,897.1	1,899.8	2.7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08년말	2009년		2010년		전일비	
		6월말	12월말	10월8일	10월14일		
국제 유가	WTI	44.61	69.08	79.35	82.68	82.59	-0.09\$
	Dubai	36.45	71.85	78.06	79.58	81.58	2\$
CRB선물지수	229.54	249.96	283.38	295.11	299.93	4.82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